

보조금 유혹에 '지자체 2중대' 우려



〈중〉 위험한 동거

자치단체 지원, 비판 축쇄
시민운동 이끌 동력 한계
건강한 공생 토대 마련해야

실정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공공기관이 주는 지원금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들도 적지 않고, 그동안 '고행'(苦行)의 경력을 바탕으로 감시 대상 기관으로 옮겨 가는 인물이 줄을 이어 적극적인 감시·견제 기능이 이뤄지겠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와 감시대상인 자치단체의 '위험한 동거'는 비판·감시 기능을 잃어가는 축쇄가 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이들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도 우려할 일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자율·독립성은 물론 자체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회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5000원에서 1만 원

으로, 500명 이상의 진성 회원을 유지하는 시민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사실상 6~7곳에 불과하다.

활동가들의 '변신'도 큰 문제. 2일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다가 곧장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정치권 장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정치권 장 개인활동 등을 하다가 제도권에 입성한 시민운동 활동가 수는 대략 10여 명 안팎이다.

이들은 당시 광주의 각종 현안과 자치단체 등의 살림살이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맡아왔던 시민운동 활동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별칭·계약직 등의 형태로 시민특보·감사담당관·비서실장·인권담당관 등 각 기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감시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대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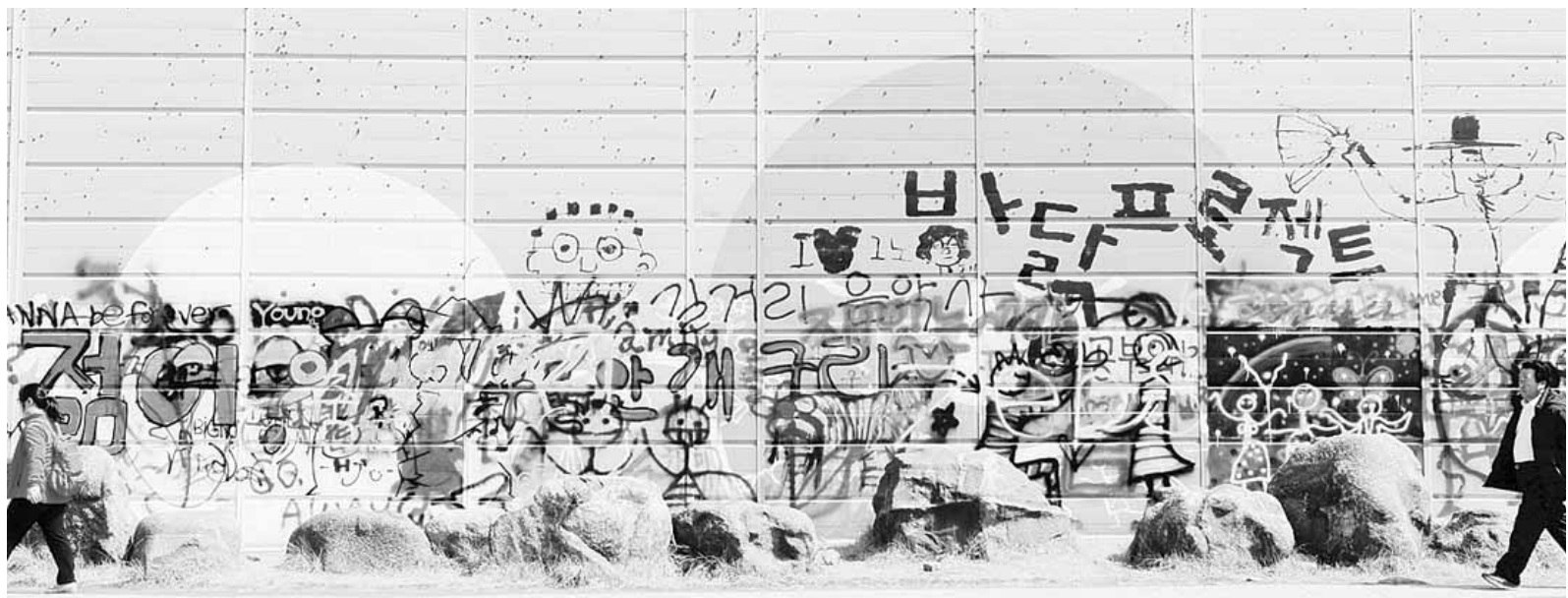
일각에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특정 공공기관의 '2중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나가고, 제도권은 이를 뒷받침해줌으로써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 제도권과의 관계설정을 놓고 시민단체 간 다툼으로 번지면서 서로 공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권·시민단체 간 '위험한 동거'는 서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포문화재단 담장 월페이팅 2일 오후 광주서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담장에 그려진 대형 월페이팅(wallpainting)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관공서 주취소란 큰 코 다친다

광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 2건 첫 적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관공서에서 처음으로 경범죄처벌법 혐의로 처벌받았다.

2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등 4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총 46개 항목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시행에

들어간 뒤 2명의 관공서 음주 소란자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청은 2일 만취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소란을 피운 이모(5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새벽 5시부터 1시간 넘게 관공서 북구 용봉지구대에서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씨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경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경찰 출동으로 무마된 뒤 다시 지구대를 찾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청도 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경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뒤 화정파출소를 찾아와 30분 넘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배모(63)씨를 적발, 입건했다.

경찰은 배씨가 지난달 27일에도 파출소를 찾아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구가 조치시켰는데, 이날 또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려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총 46개 항목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만채 도교육감 징역 6년 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350만원 벌금 500만원 등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 심리도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장 교육감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인,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나서 재판부의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에서 학교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여·55)씨와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한 것일 뿐이며 돈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 역시 장 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회맹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증인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장 교육감의 결백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구형을 했다"며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경기자 ejkim@

나원침 (8787) 김종두



백화점 도난 방지 총력전

등산복 등 잇단 절도 비상
보안요원 배치·CCTV 설치

은근 명품이 즐비하고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한 백화점에서 절도범과 백화점 보안요원들 간 '전쟁'이 치열하다.

광주서부경찰청은 2일 광주지역 L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등산복을 훔친 양모(여·5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지난달 24일, 백화점 매장을 돌며 진열된 등산 재킷 총 2벌(시가 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손님이 많은 주말과 직장인 퇴근 시간, 직원이 술떨릴 틈도 없는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씨는 훔친 물건을 다른 백화점에서 교환하는 '대범함'도 보

였다.

앞서 지난달 1일 박모(여·45)씨는 S백화점에서 매장 판매대에 걸린 등산복 상의와 스포츠 의류 등 30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서부경찰청에 붙잡혔다.

백화점측도 보안요원들을 동원,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각종 고객들의 이동 노선을 따라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24시간 수시여대의 모니터를 보며 수상한 행위를 하는 고객들을 주시하는가 하면, 도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집중 근무시간대로 편성하고 5분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졸 열명이 한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말처럼 절도 사건은 빈발하고 있다는 경찰청 설명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박시후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이 연연히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청은 당사자 진술, 폐쇄 회로(CC) 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해 중간·간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PC 등 싸게 판다" 속여 수천원 밀꼭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형제가 나란히 유치장 신세.

○2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주모(28)씨 형제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해 11월 5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시계·태블릿 PC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온 변모(24)씨 등 160명으로부터 9만~80만 원 등 모두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

○전과 32·33번인 이들 형제는 지난해 4월·7월 각각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나섰는데, 이들은 하룻밤 새 벌어들인 돈을 옮겨다나고 한 PC 방에서 10분 이상 머무르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스마트폰도 줌비로' 신종 스미싱 사기

스마트폰을 이른바 '줌비'로 만들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신종 스미싱(Smishing)사기단이 경찰청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악성앱으로 스마트폰을 감염시킨 뒤 인증정보를 유출,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한 사무실에서 외국사이트를 이용해 악성앱을 유통, 감염된 국내 21명의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수신문자를 가로채 37회에 걸쳐 500여만원어치를 소액결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치 공식 어플리케이션(앱)인양 꾸민 악성앱을 유통, 이를 내려받은 스마트폰을 조종해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결제, 중국의 게임 마니상에 피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보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는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붉은 점'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안다라한의원 중추원 원장 김동진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뭉뭉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위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재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안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주점 062-368-5075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9818호 [공표]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운 kcfce@hanmail.net 접수 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 교육비: 25만원 / (사전 접수: 3월 30일까지 입금 한하여 22만원)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 검증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 특 전: 토레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됨
토레정서코칭지도사 과정: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주관: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동로1길 10 구암동 3층 303호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www.kwangshin.ac.kr

후원: fbc 광주동부방송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200-2
gf.fbc.net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학에서 1개만 해당되던 가능)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